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에 온 힘을 바친다.
 -종일아함경-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93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11월 15일 수요일(주) 제 294호

자기를 바로 봅시다



군포교

군중법사 수급 어려워 스님들 인식전환 절실

가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 포교원이 군포교 제도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산하기구로 준비중인 군포교위원회도 재정적, 인적, 사업장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군포교를 위한 가장 큰 현안은 군중법사의 수급 문제다. 조계종 포교원이 17일까지 올해 임관할 군중법사를 모집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보한 인원은 모두 10명 정도 95년 군중법사 정원을 18명으로 어렵게 올려놓기도 아직까지 단 한번도 정원을 채워보지 못했다. 현재 군중법사는 144명으로 개신교 307명에 비해 절반도 안된다. 군법당이 비인가 법당까지 합쳐 700개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군중법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군중법사가 없다는 것은 바로 포교의 부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중비장 학생을 군중법사로 파견하거나 위덕대에 군중법사의 문호를 확대해야 한다.

거물어 스님들의 인식 전환도 절실하다.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신도들이 찾아오는데 왜 군포까지 가서 고생하느냐는 생각은 분명 버려야 한다. 치공이라도 많은 스님들이 군포교에 관심을 가지고, 종단 또한 더 많은 지원을 한다면 군대는 대중불교, 거사불교, 생활불교의 터전이 될 것이다.

김두식 기자(doo@buddhania.com)

사이버 세계의 장경각! 책방 서시아문
 www.yosiamun.com
 국내 최대 불교서점 ONLINE 닷컴
 Tel: 02) 737-0695 Fax: 02) 737-0696

교회 15:절 1... "불교 열세"

기획연재
 ① 부처님 만나기 힘들어요
 ② 중산층 포교거점인데...
 ③ 누가 어떻게 해야하나

최근 충남 공주에서 산본 신도시로 이사 온 장운석(31)씨는 아내와 함께 다닐 사찰을 찾느라 여간 애를 먹지 않았다. 동사무소에 문의했으나 등록된 사찰이 없다는 대답만 들었고, 이곳저곳 뒤져봤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교회뿐이었다. 한달여 가까이 지나 두 곳의 사찰을 알아냈지만 '교회는 많은데 절 찾기는 어렵다'는 생각에 씁쓸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경험은 신도시로 이주한 불자들이라면

종교부지 거의 교회 말로만 포교항금지대 "정책도 의욕도 실증"

누구나 겪는 어려움이다. 신도시에 불교가 없다. 신도시 어디든 가도 사찰이나 포교당을 찾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사찰(포교당)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에 허덕이고 있다. 하지만 교회는

회수는 363곳이나 되며, 분당의 경우도 사찰 7곳에 교회 135개로, 사찰수에 비해 교회수가 20여배에 달한다.

또한 경춘, 산본, 중동, 수지의 사찰수는 2~5개에 지나지 않으며, 이곳의 교회수는 적게는 20곳에서 많게는 40곳이나 된다. 부산 해운대 신도시 역시 사찰 7곳에 교회는 60여 곳이 넘는다.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속된 말로 '개일'이 안된다.

서울 인근 6개 신도시의 사찰(포교당 포함) 수는 모두 42곳 교회 611개와 비교하면 15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신도시 중 불교세가 가장 우수한 곳으로 꼽히는 일산의 경우 사찰 수는 20여 곳에 불과하지만 교

회는 363곳이나 되며, 분당의 경우도 사찰 7곳에 교회 135개로, 사찰수에 비해 교회수가 20여배에 달한다.

또한 경춘, 산본, 중동, 수지의 사찰수는 2~5개에 지나지 않으며, 이곳의 교회수는 적게는 20곳에서 많게는 40곳이나 된다. 부산 해운대 신도시 역시 사찰 7곳에 교회는 60여 곳이 넘는다.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속된 말로 '개일'이 안된다.

서울 인근 6개 신도시의 사찰(포교당 포함) 수는 모두 42곳 교회 611개와 비교하면 15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신도시 중 불교세가 가장 우수한 곳으로 꼽히는 일산의 경우 사찰 수는 20여 곳에 불과하지만 교

지역명	사찰	교회	성당
일산	20	363	4
분당	7	135	4
중동	4	20	5
경춘	2	23	1
산본	4	41	1
수지	5	29	4
해운대	7	60	-

포교학회 내년초 창립 내년초 창립

포교학회(가칭)가 내년 초 창립된다.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학과장 홍선스님)와 조계종 포교승가회(회장 홍우스님)는 2일 연석회의를 갖고 홍선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포교학회 설립준비위원회를 12월까지 구성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교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조계종 포교원, 교구본사 포교국장회의, 포교사단을 비롯하여 각 종단 포교실무자, 교계 포교관련 전문가를 포용하는 범불교적 포교학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포교학회는 내년 초 창립과 함께 포교 학술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며 △포교학 연구 △상담 △심리적 포교방안 연구 △어린이·청소년 등 분야별 포교방안 연구를 통해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포교방법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창립준비위 실무자 김명철(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교수는 "포교기법을 연구·개발하여 사찰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환경부장관 사과 요구 조계종, 공원재조정 관련

조계종 총무원은 9일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 "환경부장관에게 보내 국립공원 구역재조정 총괄협의회가 참조토록 한 의견서를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해 사찰과 지역주민간의 분쟁으로 유도하고 있다"며 환경부장관의 공식 사과를 요청했다.

조계종은 10월 5일 환경부에 낸 의견서를 통해 지리산 백무동 계곡의 국립공원 편입, 쌍계사 집단시설지구의 구역 해제를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자연공원과의 실무자는 "각계의 의견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 합리적으로 판단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은 기자



위용 드러낸 천태종 대조사전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오늘의 국보급 문화재'를 건립하겠다는 원력으로 중단의 총력을 모아 삼할 원각 이경숙 기자 대조사전을 낙성, 5일 화합법요식을 성대하게 봉행했다. <관려기사 2면>

관음종 종정 혜웅스님 열반

관음종 종정 은공 혜웅 스님이 5일 오후 6시 천안 보월사에서 입적했다. 법랍 46세, 세수 73세, 혜웅스님은 1928년 천안생으로 55년 강원도 강선사로 출가, 59년 태허 총선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관음종 호법원장, 원로원장을 거쳐 지난 해 7월 관음종 제5대 종정에 추대됐다. 스님의 영결식은 13일 오전 10시30분 보월사에서 종단장(葬)으로 봉행했으며, 다비식은 오후 2시 보명사에서 거행됐다. 이경숙 기자

개성지역 문화재 조사 '가시화'

남북한 합의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북한 개성공단 지역에서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현대 아산과 통일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개성 지역 문화재 조사'를 향후 남북 장관급 회담의 공식 의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를 본격화하기 전 남북 학자들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부지를 공동조사하고, 매장 문화재와 유적 존재 여부 역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 관계자들은 "시범공단은 11월에 착공, 내년 9월 가동을 목표로 하는 등 서두르고 있어 매장문화재를 확인하는 지표 조사와 시굴, 발굴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지 걱정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개발 예정지 중에는 흥왕사지, 천수사지 등 불교 유적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오종욱 기자

제 6회 신행수기 공모

교계의 정경과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6회째를 맞습니다. 가을에 돌아오는 감동깊은 신명체험들을 진솔하게 써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귀한 신명이야기는 많은 불자들의 삶에 귀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부터 총화종무원장님이 추가해 신행수기 공모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투표할 상황이 준비되어 있으며, 입상작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에 게재되며 이번 공모에 불자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원고지 30매... 마감 12월16일

△주제: 생활속의 불교관련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문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함
 △마감: 2000년 12월 16일
 △당첨작 발표: 2001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접수처: 서울시 중포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02)722-4162

△시상내용
 ○대상(유망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우수상(본사 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천태종 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관음종 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총화종 총무원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 대원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상장, 부상(순금 행운의 열쇠)
 ○유모지 전원 기념품 증정



소장하면 소장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책

- ◆ 한국의 불화를 집대성하기 위해 전국의 사찰 및 국공립박물관, 대학박물관, 사립박물관 등 국내외에 산재한 불화를 직접 조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11개 본말사 564개 사찰, 박물관 7개소, 1,621점, 3,674점 수록)
- ◆ 원색도판을 풍부하게 실어 원화를 직접 대하는 느낌이 들도록 하였으며, 각 불화에 대한 해설과 함께 畵記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 ◆ 이 불화집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부처님의 저미심이 피어나고, 민족문화에 대한 새로운 자긍심이 싹트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석정 큰스님-
- ◆ 한국불화의 전체적인 모습을 처음으로 집대성한 이 불화집의 간행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사적인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조신일보-

韓國의 佛畵

불교출판 사상 최대의 불사, 두 번 다시 하기 힘든 한국불화의 집대성

해를 거듭할수록 훼손으로 인해 권취하기 어려워지는 각종 불화들! 우리의 성보인 이 불화(명화)들은 장엄한 불국토의 화현이요 신심의 결정체이며, 불보살님의 원만한 상모에서 우리나오는 복덕의 광명은 우리의 어둠을 없애주고 간절한 바람을 성취시켜 줍니다. 사단법인 성보문화재연구원에서는 10년의 조사와 촬영 끝에 『한국의 불화』 1차분 20권을 완간하였습니다. 아울러 완간을 기념하여 2개월 동안 특별 할인판매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디 이 기회에 불화집을 구입하시어 불보살님과 함께하는 인연을 맺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5년 전의 약속, 1차분 20권 마침내 완간!



- 『한국의 불화』 1차분 간행목록(1996년~2000년)
- | | |
|------------------|-------------------|
| 제1권 통도사 본사 편(상) | 제11권 화엄사 본말사 편 |
| 제2권 통도사 본사 편(중) | 제12권 선암사 편 |
| 제3권 통도사 말사 편(하) | 제13권 금산사 본말사 편 |
| 제4권 해인사 본말사 편(상) | 제14권 선운사 본말사 편 |
| 제5권 해인사 본말사 편(하) | 제15권 마곡사 본말사 편(상) |
| 제6권 송광사 본말사 편(상) | 제16권 마곡사 본말사 편(하) |
| 제7권 송광사 본말사 편(하) | 제17권 법주사 본말사 편 |
| 제8권 적지사 본말사 편(상) | 제18권 대학박물관 편(I) |
| 제9권 적지사 본말사 편(하) | 제19권 대학박물관 편(II) |
| 제10권 원경사 본말사 편 | 제20권 사립 박물관 편 |

原畵 그대로의 화려함이 살아 있습니다

- 판형: 가로 257 × 348mm (타블로이드판형)
- 면수: 각권 250쪽 내외
- 인쇄: 원색화보, 해상, 논문, 화기 수록
- 장정: 점면 컬러-양장제본
- 발행처: 성보문화재연구원
- 가격: 각권 90,000원

성보문화재연구원 이사장 범 하 합장
 구입문의 / 성보문화재연구원 ☎ (02) 587-6612, 팩스 (02) 586-9078

『한국의 불화』, 원간 기념 특별가 200원 한정부급
 기간: 2000년 11월 2일 ~ 12월 31일
 보급가: 1책만 원 (20원 1정, 현금결제에 한함)